



서울 올림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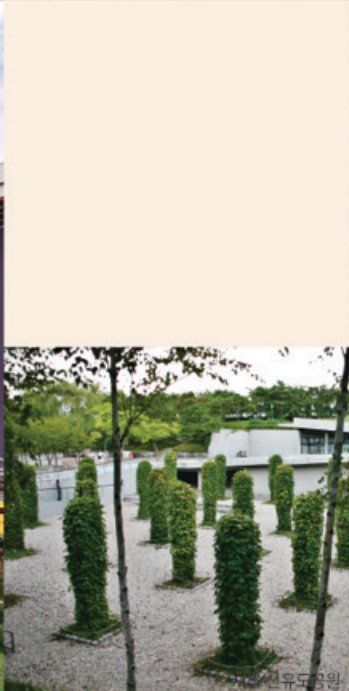
LandscapeReview

Landscap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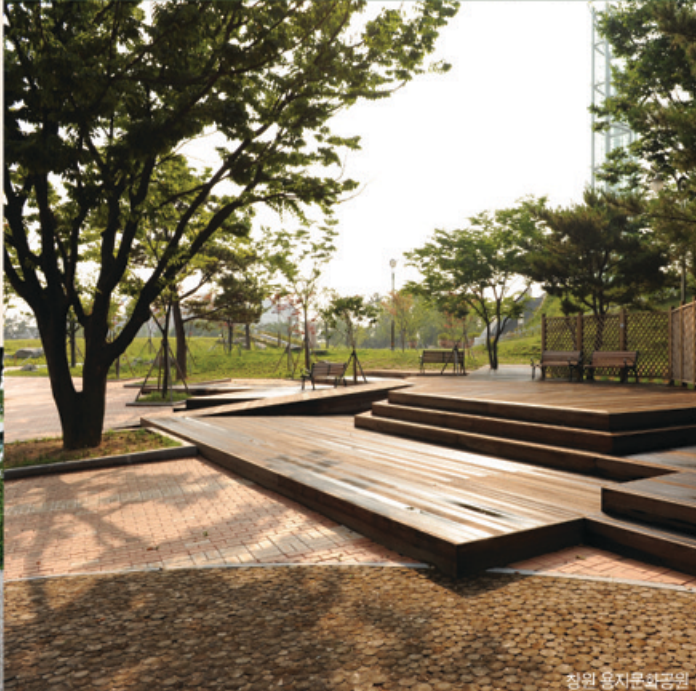
조경정보 vol. 09



파주 유비파크



신유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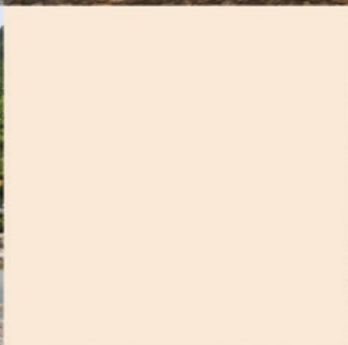
청원 용지문학공원



울산대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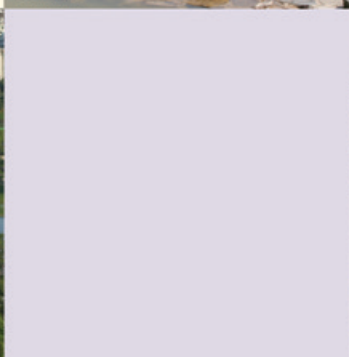
울산 호수공원



울산 태화강대공원



경희대공원



울산 호수공원



Contents

도시대표공원

- 02 도시 브랜드로서 대표공원
- 04 도시대표공원과 도시
- 06 도시의 얼굴을 키운다. 도시대표공원
- 07 Issues & News



도시 브랜드로서 대표 공원

조경진 Zoh, Kyung Jin 서울대 한양대학교 교수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저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을 가지고 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룩셈부르크공원, 베를린의 티어가르텐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상징으로 떠올릴 수 있는 공원은 무엇보다도 뉴욕의 센트럴파크이다.

센트럴파크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에 등장하곤 한다. '맨해튼(1979)', '해리가 쉐리를 만났을때(1989)' 등 우디 앨런의 많은 영화에서부터 최근의 커스틴 쉐리단의 '어거스트리쉬(2007)' 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센트럴파크는 도시의 일상적 공간이자 치열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센트럴파크에서 볼 수 있는 고층빌딩 숲과 대비되는 광활한 푸른 숲이 펼쳐지는 경관은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장관으로 센트럴파크만의 고유한 특징이자 풍경이기도 하다.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도시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단지 넓은 면적이나 많은 나무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센트럴파크와 친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있다. 매일 아침저녁 조깅하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 도시생활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 밤에는 각종 음악 공연이 벌어지고, 겨울날에는 스케이트장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욕의 도시적 삶과 센트럴파크의 서정적 풍경은 묘하게 대조되기도 하고 이는 뉴욕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일조를 하기도 한다. 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특정 공원을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서 도시 공원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대표공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한 도시에서 규모 면에서 가장 크거나, 조성된 지 오래되었거나 의미 있는 공원들이 대표공원이 된다. 예컨대 센트럴파크는 백 만평규모로 절대적으로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이며, 맨해튼 면적의 약 6%나 된다.

또한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자 런던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원이다. 왕실의 사냥터였던 장소를 1630년대 찰스 1세 때부터 일반 대중에서 공개하였고 대중 공원으로써 지금까지 잘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공간의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고, 다이아나 메모리얼이나 서펜타인 갤러리 등의 일부 추가 시설과 약간의 변형만이 있었다.

파리의 룩셈부르크 공원은 면적이 크거나 가장 오래된 공원은 아니지만 주변에 대학가와 인접하여 학생들도 많이 찾고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 파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대표적인 공원이다. 무엇보다도 파리 공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식 철제 벤치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파리적인 공원문화의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물론 대표공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과 조건이 있어서 이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공원의 이용자인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 공원을 오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표공원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따라서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스럽게 도시마다 몇 개의 대표공원이 존재한다.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 파리의 시트로앵 파크, 베르시 파크 등도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었지만 도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잘 활용되면서 대표공원이 된 사례이다.

최근에는 공원이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는 공원 자체의 성공 뿐 아니라 공원으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데 성공한 예이다.

이곳은 원래 도시중심부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장소였으나 이를 공원화하면서 시카고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민관협력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재원을 확보하였고, 조성 과정에서 창의적인 코디네이션



영국 하이드파크



미국 센트럴파크



독일 티어가르텐



미국 밀레니엄파크



룩셈부르크파크

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음악과 건축, 미술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장소를 만들어 냈다. 2004년 개장 이후 밀레니엄 파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카고라는 도시에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2005년 Priceline.com에 의하면 시카고는 미국의 대표적 관광지 35개 중 1위로 등극하게 되었고, 40여개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면서 시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은퇴자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도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한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주변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4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현대의 많은 도시들은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와 같은 공원을 꿈꾼다. 공원을 통하여 도시의 희망을 새롭게 그려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각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을 가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례는 많다. 서울의 용산공원의 경우 그 입지나 규모면에서 대표공원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부산의 하야리야 공원 역시 공원녹지가 부족한 부산에서 대표공원으로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을 만드는 일은 우리 도시의 면모를 혁신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좋은 사례를 참조하면서 치밀한 기획 하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kjzoh@snu.ac.kr



도시대표공원과 도시

현대 도시에서의 공원은 도시 속 녹색공간으로서만 아니라 도시를 형성해 가는 동력, 나아가 도시 그 자체로까지 이야기된다. 도시 스케일에 대응되는 대형공원 뿐 아니라 근린공원의 규모에서도 생활권 단위의 도시를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다.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의 한 시설로만 보는 관점은 이미 과거의 시각이 되어 버렸고 도시와 공원을 한 몸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등장한 지 오래이다. "조경이 만드는 도시"의 비전 속에서 공원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에 해당되며 도시 성장의 출발점인 셈이다. 하지만 도시 규모이든 지구, 근린 규모이든 공원이 도시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일 것이다. 도시에서 공원과 녹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계획과 설계를 통해 보다 좋은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이용과 관심과 관리에 의해 그 생명력은 발현되기 때문이다. 도시대표공원은 공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이며, 선천적으로 결정된 유전자라기보다는 도시가 만들어 가는 도시의 지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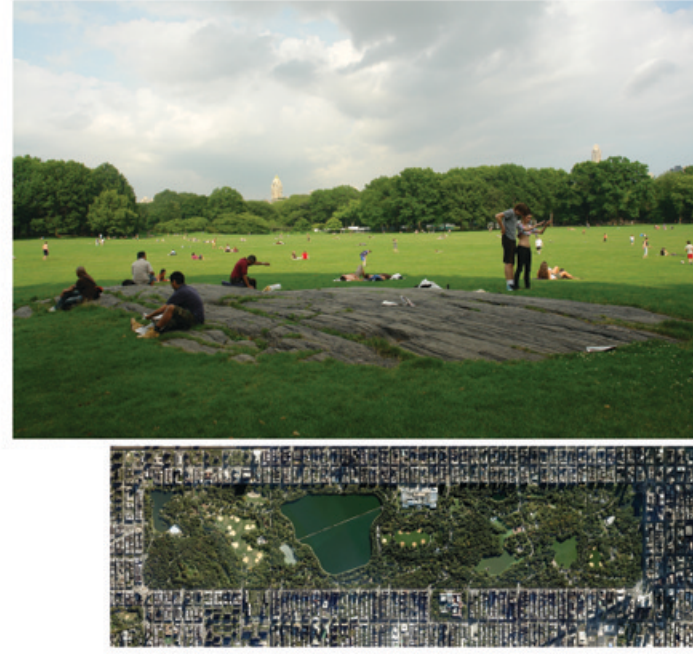


서서울호수공원

2009년 10월 개장한 서서울호수공원은 면적 217,946㎡로 2003년 폐쇄된 신원정수장부지와 용도폐기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물'과 '재생'을 테마로 한 친환경공원이다. 2008년 도시공원 시설결정을 통해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능골산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간 공원 공동조성 협약이 체결된 공원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서서울호수공원과 함께 북서울 꿈의 숲, 서울숲, 보라매공원 등이 권역의 대표공원 역할을 하는 틀로 재편되고 있다.

푸른길공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철도폐선부지는 새로운 녹지, 도시공원 또는 또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광주 푸른길공원은 광주광역시 4개 자치구에 걸쳐있던 경전선 철도 10.8km가 폐선된 후 공원화된 사례로서, 도시재생적 의미의 공원이기도 하다. 공원 성립과 조성과정에서 행정과 시민의 갈등 해결과 시민참여과정을 의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광주의 도시대표공원으로 볼 수 있다.



동경 우에노공원

통상 우에노공원으로 불리는 우에노온지코엔(上野恩賜公園)은 53만㎡ 규모의 대형 도심공원이다. 1873년 일본 최초의 도시공원으로서 지정되었으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서양의 도시공원제도를 모방하려는 근대기 일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 시민위락 목적인 전형적인 종합공원으로서, 크든 작든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일본의 도시공원들의 전형이다.



뉴욕 센트럴파크

조경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F. L. 윌스테드에 의해 1858년 계획된 센트럴파크, 맨해튼의 중심공원, 뉴욕의 대표공원, 미국의 대표적 도시공원, 근대를 대표하는 도시공원. 그 어느 수식어보다도 센트럴파크는 도시와 자연의 대비 공식을 보여주며, 대중을 위한 복지적 공공공간의 표상을 나타낸다. 푸른 풀밭(Greensward)이라는 윌스테드의 현상공모 제출안 제목에서처럼 넓은 풀밭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풍경식 공원의 이미지로 고정되었다.



미국 밀레니엄파크



프랑스 라빌레르파크



영국 리젠트파크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파크





도시의 얼굴을 키운다, 도시대표공원

조 동 범 Cho, Tongbuhm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지난 8호의 공원복지기본계획에 이어 이번 9호에서도 공원과 관련된 주제이다. 이번 호의 주제인 도시대표공원은 사전 편집회의에서 주제의 적절성을 두고 다소간 논의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제목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막상 조정정보지의 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면 공원제도상의 용어도 아니고 그 애매한 정의에서부터 풀어내기 어렵지 않겠는지? 특정한 공원을 어느 도시의 대표공원으로 명시할 때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혹은 문제는 없겠는지? 등의 논의들이었다. 하지만 무겁지만 얇다면 한뼘쯤은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만은 아니지만, 이번 호에 실린 공원들이 그 도시의 대표공원이나 아니냐를 떠나 우리의 도시에는 대표공원이 있는지 혹은 공원으로 대표되는 도시가 가능한지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

도시의 이미지를 연구한 케빈 린치는 보스턴의 도시인지도 연구를 통해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과 같은 공원이 도시공간의 인지도를 형성하는 5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면적인 형태인 지역(district)으로서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음을 규명해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해하고 공간구조를 읽어내는 공통성이 있다면 그만큼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음을 뜻하기에, 녹지공간의 의의 이상으로 도시를 인식하는 대표적인 틀로서 공원의 위상은 많은 공원들 속에서도 또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원(들)이 도시대표공원이 될 수 있을까? 대형공원, 오래된 공원,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 성립에 있어 의미가 있거나 상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원, 각종 편의·문화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공원, 디자인과 시공이 뛰어난 공원... 도시마다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원세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활권공원은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도시시설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고, 문화, 역사, 수변, 체육공원 등을 주제공원으로 분류해두고 있음을 근거로 하면 어느 쪽에서 수소분해할지 조금은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가 거주하는 광주의 1호 공원인 광주공원은 1943년 조선시가계획령에 따라 최초로 설치된, 오래된 도심공원으로서 대표적 공원이다. 서울의 탑골공원이나 남산공원, 부산의 용두산 공원, 인천의 자유공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래된 공원들이 겪은 변화가 그러하듯이, 과거에는 잘 차려지고 나들이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근린생활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데다 신선한 시설프로그램도 없다보니 발걸음이 뜸해지고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원으로 쇠락하고 말았다. 아마 시민 전반에게 오래

된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게하는지 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그만큼 도시중심성이 회복해지고 도시대표공원으로서의 위상도 회복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물론,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공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도시대표공원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그 규모에 의한 바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대형공원이 도시를 대표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제도상의 배경이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근대적 도시공원 이미지에 의존한다. 특히 제도상의 공원분류에서는 이용자 유치권역의 크기에 따라 공원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대형공원은 공원분류상 상단에 올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원제도가 주로 참조했던 일본의 도시공원제도에서는 아직도 도시규모에 대응하는 면적 10~50ha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종합공원이나 15~75ha를 기준으로 하는 운동공원이 도시대표적인 공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면적상의 기준일 뿐 도시대표공원의 본질적 의미와는 다른 것 같다. 오히려, 시민의 휴식, 감상, 산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이용을 공간프로그램에 담고 많은 이용자 수용을 상정하여, 공원이란 이런 저런 것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종합적인 공원매뉴얼로서의 성격이 가깝지 않을까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설계되는 공원에서는 종합공원에 대한 강박관념(?)은 벗어난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슈가 되었던 몇 개의 공원이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공원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의 제기에서부터 접근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공원이 현대도시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고, 그 속에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구조를 가지며, 도시 전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저 어떠한 시설들로 구성되는가라는 제도적 틀짜기의 안이한 루틴워크(routine work)에 갇혀, 도시계획에서 정한 도시시설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도시대표공원이 평범한 생활권 공원에 비해 더 중요하다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도 사실은 없다. 다만, 시설의 종류와 물적 표준에 따라 전국 어느 도시든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공원들 속에서, 도시대표공원이라는 제도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원 찾기를 통해, 그저 매뉴의 종류와 덩치로 정해지지 않는 공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대표공원은 도시를 대표할만 하다고 느낄 만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주어지는 가치일 것이다. 따라서, 생활권의 작은 공원도 얼마든지 도시대표공원이 될 수 있다. tobcho@chonnam.ac.kr

Issues & news

조경문화·녹색문화 라앳트 www.lafent.com

201009 Landscape Review

부산 사상광장로를 명품가로공원으로 조성



부산 사상광장로가 녹음을 배경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녹색교통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건강한 거리로 탈바꿈한다. 부산시는 사상구 사상역-괘법교에 이르는 사상광장로 1.1km(폭 100m)를 명품가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현상공모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엔 디자인, 능전종합건설(주), ㈜피에이치스디디자인이 공동 제출한 '금빛 모래 위, 숲으로 난 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가로수가 심겨진 보도와 차도로 나누어진 도로가 아니라 자연과 만나고 문화가 어우러진 생명력 넘치는 거리는 만드는 컨셉으로 표현했다. 특히 사상광장로를 금빛가람정원길, 푸른물결카페길, 사상광장길, 한바들공원 등으로 나누어 특성화된 공간과 시설물을 배치, 매력있는 경관을 만들도록 구상했다. 사상광장로 명품가로공원의 1단계 사업은 사상시외버스터미널-르네시떼, 역사 주변 등에 55억원을 들여 2011년 4월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에 맞춰 완료된다.

대명합상공원 개장



퇴역 함정을 이용한 합상공원이 경기 김포시 대명동에 문을 연다. 9월 10일 수도권 최최이자 전국 8번째 합상공원으로 개장되는 대명합상공원은 2006년 말 퇴역한 해군 상륙함 운용함을 중심으로 2년여간의 공사를 거쳐 실내외 전시장과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 안보관광지이다.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83억4000만원(국비 24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49억4000만원)이 투자됐다. 주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운용함의 길이는 99.6m, 폭 15.3m, 높이 23.5m에 이르는데, 함정 내부는 해병대 체험시설과 3차원(3D) 영상관, 공연장 등 전시, 영상,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외부는 분수대, 야외무대, 탱크 등의 전시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해 대명항 일대를 복합 안보 체험 관광명소로 조성했다. 또 주변에는 덕포진과 예기봉전망대 등이 가까워 병영체험 및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안보관광이 가능하다.

광주 국내 최대 음악공원 조성

광주 도심 속 대표적 시민쉼터인 구동 사직공원이 국내 최대의 음악공원

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발맞춘 '시작국제문화교류타운'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광주발전연구원)를 통해 사직공원의 명칭을 '시작문화예술공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사업비 412억원을 들여 포크뮤지 특화지구, 아시아음악공원, 음악하우스, 야외음악당 등을 만들 계획이다. 공원과 1km 이내에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시설, 공원 옛길, 광주천변 길과 연결되는 '주변 5대 거리'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역사성을 가진 공원 내 근현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건축물의 전면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옛 수영장 부지에 들어설 야외음악당만 신축할 예정이다. 야외음악당은 200억 원을 들여 그릇 모양을 본뜬 형태로 신축한 뒤 영상예술 공연장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0년 11월 1일 발행된 조경정보 제10호의 주제는 '광장'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앳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10년 10월 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www.lafent.com

전국 최대 수변공원 '태화강 대공원' 개장

전국 최대의 도심 수변생태공원 태화강 대공원이 6년간의 공사 끝에 시민들 곁으로 돌아왔다.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일원(명천천-용금소에서)을 '여의도공원'의 2.3배인 총 면적 63만1천㎡ 규모의 태화강 대공원 은 지난 6월 11일 준공식을 가졌다. 사업비 1,190억원이 투입된 태화강 대공원은 공원 한 가운데를 흐르는 실개천 물놀이장, 백천형태의 오산돛, 국내외 63종의 대나무가 심겨져 있는 대나무생태원, 웅장한 느티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느티나무숲길과 광장,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 피크닉 장소 겸 생태주차장인 다목적광장,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으로 조성됐다.



앞으로 썰바위, 빈구대 암각화, 천천리 각석 및 대곡천 유적지 등의 역사문화유적에 연결되는 백리 자전거길과 역사탐방로 등이 추가로 완공되고, 하천생태개보전과 청정하천 유지를 위해 상시 풍족한 하천수량을 공급할 상류의 언양·굴하 하수처리시설도 2014년까지는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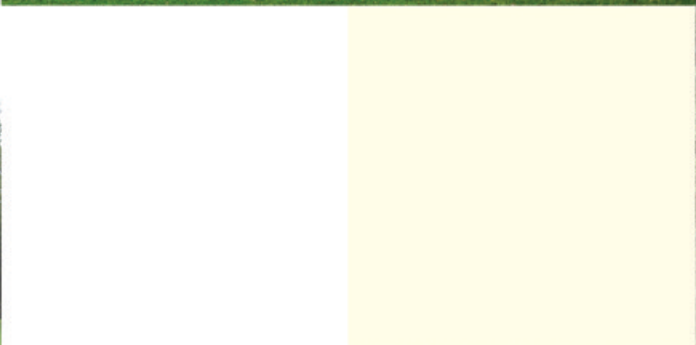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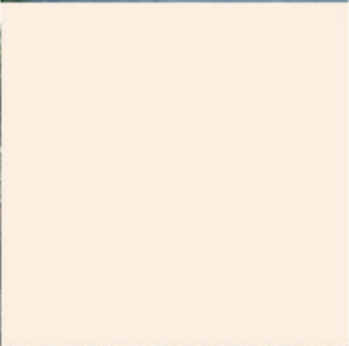
»»» 회화·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음악이 흐르는 한강공원의 가을 일산호수공원 매주 일요일 플라워마켓장 송도한옥마을 전체 전통공원으로 조성 (사)한국조경사회 여성분과 리소스 희망농이 터 모금운동 군산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영화 고양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올인 1만당 공원연령, 1위는 울산 한반도 중앙에 테마공원 만든다 하천 전문인력 양성, 금융살판다 빗물관리시스템 아산신도시 전역에 도입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장 | 이삼석
편집위원 | 조동범
김호철 권진욱 박문호 이형숙 정옥주 주신하
김도경 김태경 이유희 조경진 진양고 최선현
건사 | 임해숙 박정희
2010년 9월 1일 발행 | 발행처 _ (사)한국조경학회



- 1 Sui & Tang Dynasty Relics Park, Luoyang, China
- 2 Park of Maria Luisa, Sevilla, Spain
- 3 Botanic Garden, Singapore
- 4 Duisburg-Nord Landschafts Park, Duisburg, Germany
- 5 Grunenburg Park, Frankfurt am Main, Germany
- 6 Sibelius Park, Helsinki, Finland
- 7 Inokashira Park, Tokyo, Japan
- 8 Fort Santiago Garden, Manila, Philippines
- 9 Green Park, London, U.K
- 10 Shinjuku Park, Tokyo, Japan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

vine
 Landscape design
 (주)비인플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628호
 Tel. 02-2040-6896
 Fax. 02-2040-6897
 홈페이지 www.vineplan.com
 웹하드 vineplan.webhard.co.kr / vine99 / guest